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 시장접근성 개선 및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으로 올해 내 편입 위해 최선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3.30.(목) 17:00(한국시간 3.31.(금) 06:00), 「2023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March 2023)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관찰대상국(Watch List)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한국은 지난해 9월 시장접근성 상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등재된 바 있다.

* 24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있는 '선진 채권지수'이자 추종자금 규모만 약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한국의 국가분류와 관련하여, FTSE Russell은 '22년부터 '23년 초까지 한국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FTSE Russell은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으며,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개선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선진 채권의 기준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 수급기반 안정,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성 확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해 내에 세계국채지수(WGBI)정식 편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FTSE Russell의 '채권시장 국가분류' 도입 이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사례

- (중국) '19.3월 관찰대상국 등재 후 '21.3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결정

- (스위스) '21.9월 관찰대상국 등재 후 현재까지 세계국채지수(WGBI) 미편입

첫째, 기 마련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23.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23.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금년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같이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한 과제의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가적인 편의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신청서 및 신고 서류의 공식 영문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29일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한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거주자(외국 금융기관 등 포함)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셋째,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물론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제도 개선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해외 IR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일정을 상세히 홍보·안내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FTSE Russell측과도 각급 단계에서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박정상 (044-215-5132)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March 2023)

1. Status of Current Watch List Markets

South Korea

South Korea will remain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for the potential reclassification of its Market Accessibility Level from 1 to 2, and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In September 2022, South Korea was placed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for a potential upgrade to a Market Accessibility Level of 2, and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GBI.

During the course of 2022 and early 2023,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have undertaken, or are in the process of undertaking, several initiatives intended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accessibility of the South Korean capital markets for investors.

These include:

- The exemption of the withholding tax levied on investment in Korean Treasury Bonds (KTB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effective from January 2023.
- Ongoing engagement between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an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ICSDs) to expedite the connectivity between ICSDs and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for efficient onboarding purposes and an improved settlement process.
- The proposed abolishment of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schem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use of Legal Entity Identifiers (LEIs) to improve the onboarding proces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 Foreign exchange market reforms which are intended to i) allow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onshore South Korean Won foreign exchange market, ii) simplify the process for third party onshore FX, and iii) extend the market's trading hours to accommodate trading outside local market hours.

FTSE Russell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tives detailed above. Certain reforms were introduced recently, while others require relevant local laws and regulation to be amended.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timeframes for the initiatives, as announced by the market authorities, some may be implemented within the year, while the timeline for others extends into the second half of 2024.

Prior to any reclassification decision relating to South Korea, FTSE Russell will seek evidence from international market participants of the efficacy of the enhancements as the reforms are implemented, and whether the relevant initiatives achieve the intended practical improvements to the market's accessibility.

FTSE Russell intends to continue its engagement with South Korean regulators and market participants.

참고 2

WGBI 개요 및 편입 요건

- ① **[WGBI 개요]** 총 24개국이 편입된 '세계 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로 런던 거래소 산하 'FTSE Russell*'에서 관리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현재 북미·유럽·아시아 등 세계 주요국(24개) 국채들이 대부분 WGBI에 편입
- 추종자금은 글로벌 패시브 펀드(인덱스·ETF), 일부 액티브 펀드, 일본계 연기금 등 약 2.5조\$ 내외 추정*(FTSE, 투자은행 등)

* 한국이 WGBI 편입시, 외국인 국채 투자 50~60조원 유입 효과 추정('20 금융연)

- 추종기관은 편입 국가별 국채 비중을 벤치마크로 채권 투자

【 WGBI 편입국 현황 】

북미(3)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1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시아(7)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

- ② **[WGBI 편입 요건]**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세 가지 요건 만족 필요

- (정량조건: 韓 충족) ①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 이상,
②신용등급이 S&P 기준 A- 이상
- (정성조건: 韓 미충족) 시장접근성 Level.2 (韓 Level.1)

*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FTSE의 주관적 평가 요소
→ 제한이 없는 경우 Lv2,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 Lv1 (Lv2>Lv1>Lv0)

- ③ **[편입절차]** ①FTSE 협의 거쳐 관찰대상국 포함(매년 3, 9월)
→ ②6개월이상 검토후 편입 결정(매년 3, 9월)